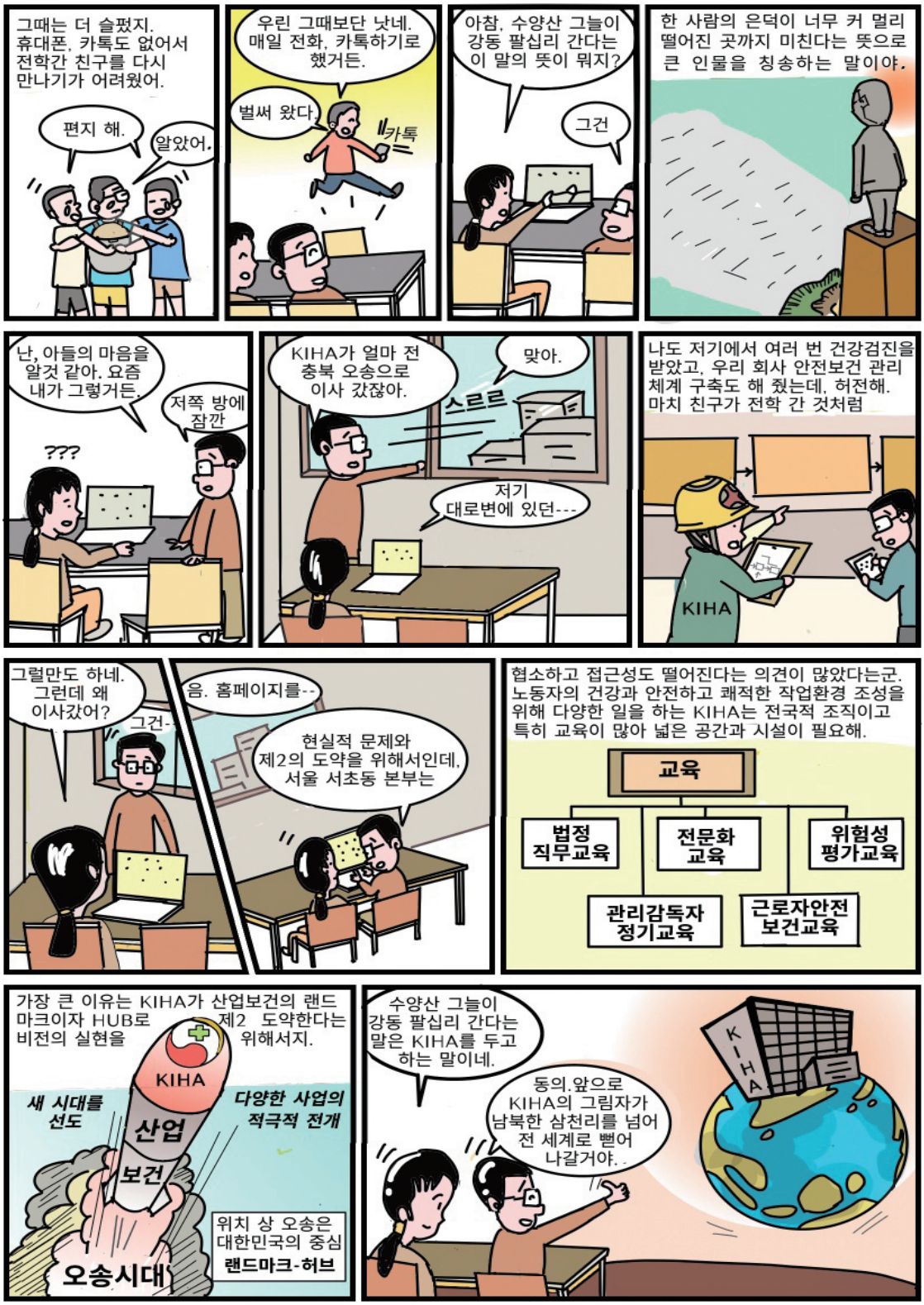
오송시대 개막, 제2의 도약으로

KIHA 그림자가 세계를 간다.


그때는 더 슬펐지. 휴대폰, 카톡도 없어서 전학간 친구를 다시 만나기가 어려웠어.
편지 해.
알았어.
우린 그때보단 낫네. 매일 전화, 카톡하기로 했거든.
벌써 왔다.
카톡
아참,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 간다는 이 말의 뜻이 뭐지?
그건
한 사람의 은덕이 너무 커 멀리 떨어진 곳까지 미친다는 뜻으로 큰 인물을 칭송하는 말이야.
난, 아들의 마음을 알것 같아. 요즘 내가 그렇거든.
저쪽 방에 잠깐
???
KIHA가 얼마 전 충북 오송으로 이사 갔잖아.
맞아.
스르르
저기 대로변에 있던---
나도 저기에서 여러 번 건강검진을 받았고, 우리 회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도 해 줬는데, 허전해. 마치 친구가 전학 간 것처럼
KIHA
그럴만도 하네. 그런데 왜 이사갔어?
그건-
음. 홈페이지를--
현실적 문제와 제2의 도약을 위해서인데, 서울 서초동 본부는
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는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KIHA는 전국적 조직이고 특히 교육이 많아 넓은 공간과 시설이 필요해.
교육
법정 직무교육
전문화 교육
위험성 평가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근로자안전 보건교육
가장 큰 이유는 KIHA가 산업보건의 랜드마크이자 HUB로 제2 도약한다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지.
KIHA
산업
보건
새 시대를 선도
다양한 사업의 적극적 전개
오송시대
위치 상 오송은 대한민국의 중심 랜드마크-허브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 간다는 말은 KIHA를 두고 하는 말이네.
동의.앞으로 KIHA의 그림자가 남북한 삼천리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갈거야.
KIHA